

조선 후기 인장(印章)의 감상과 물질적 향유*

이 다 란**

목 차

- I. 머리말
- II. 명·청대 문인의 인장 인식과 감상
- III. 조선 후기 인장 문화의 유입과 인쇄(印材)에 대한 관심
- IV. 기록과 이미지로 본 조선 후기 인장 향유 양상
- V. 맺음말

국문초록 | 본 연구는 인장의 재료, 특히 인석의 색, 광택, 무늬 등 물질적 특성이 조선 후기 인장 애호가들 사이에서 어떻게 향유되었는지 고찰한다. 인장은 고대로부터 증명과 신용의 용도로 사용되었으나, 명대 중엽 인장의 재료로 돌이 새롭게 주목받고 문인들이 직접 인장 제작에 나서면서 서재의 주요 기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해 명·청대 인장 문화의 영향을 받은 조선 후기 문인들은 인장을 단순한 도구가 아닌 예술적 감상의 대상으로 바라보았다. 문인들은 특히 인석이 지닌 색, 광택, 장식 등 조형적 특징에 관심을 보였으며, 개인 서재에서 한가로운 시간을 보낼 때 인장을 꺼내어 감상하는 취미를 즐겼다. 이는 인장을 감상과 공간 장식의 영역에서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이처럼 조선 후기

* 본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재원을 지원받아 수행한 연구(NRF-2022S1A5C2A02092180)로, 2023년 11월 24일 개최된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정기학술대회 <조선시대 공예문화의 장면들>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했음.

** 李茶蘭 이화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 박사과정 sgem126@naver.com

투고일: 2024. 5. 6. 심사완료일: 2024. 6. 26. 게재확정일: 2024. 6. 28.

DOI URL: <http://dx.doi.org/10.17792/kcs.2024.46..247>

인장 문화는 글씨를 새기거나 인영을 수집하고 출간하는 행위에 국한되지 않았으며, 감상과 공간 장식의 측면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조선 후기 문인들이 애호했던 인장의 물질성에 주목하며, 인장을 공간을 구성하는 경물의 하나이자 소유자가 애정하고 감상하는 대상으로 바라본다. 이러한 접근은 조선 후기 문화계의 ‘도장벽’을 더욱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든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핵심어 | 조선 후기, 인장, 문방구, 문인, 서재, 감상

I. 머리말

고대로부터 증명과 신용의 용도로 사용된 인장(印章)¹⁾은 원대 이후 시서화의 부흥 속에서 독창적인 예술의 장을 확립하였고, 문인들의 필수 문방구 중 하나가 되었다.²⁾ 조선 후기 문방청완(文房淸玩) 취미에 뜻을 둔 문인들 또한 인장을 애호했는데, 이규경은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에서 당시 문인들이 사우(四友), 즉 종이·붓·벼루·먹과 같은 문방 기물뿐만 아니라 사인(私印)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아주 깊이 심취한 것을 “도장벽(圖章癖)”이라 불렀다고 말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도장벽(圖章癖)이란 인석(印石)과 인쇄(印色)를 힘써 살피고 인보(印譜)를 편찬하는 일이었다.³⁾

조선 후기 문예 사조 속 취미와 몰입의 대상이 된 인장에 관해서 한문학, 국문학, 서지학, 서예사 등의 분야에서 상당한 연구 성과가 축적되었다. 조선과 명·청의 인장 교류, 조선 후기 전각의 유파나 인장 담론, 전각의

1) 인장(印章)은 관인(官印)과 사인(私印)을 포괄하여 이르는 용어이다. 조선에서는 인장을 비롯해 인(印), 장(章), 그리고 도서(圖書)라는 용어도 사용했다. 도서는 오늘날 책을 지칭하는 용어로 이해되지만, 과거에는 그림이나 책을 감상하고 ‘某人圖書’라는 인기(印記)를 찍어 남긴 것에서 비롯하여 결국에는 인장을 뜻하게 된 말이다. 본고에서는 여러 용어 중 인장(印章)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겠다.

2) 박철상, 「임진왜란과 장서인의 보급」, 『문헌과해석』 18, 문헌과해석사, 2002, 44쪽.

3) 李圭景(1788-1856), 『五洲衍文長箋散稿』 「蜚油辨證說」 “又有私印之學。俗謂之圖章癖。而印石與印色。極力采擇。蓋自宋宣和之世。”

미학적인 측면까지 폭넓게 연구되면서 인장은 조선 후기 문화사의 중요한 주제로 자리매김했다.⁴⁾

그러나 조선 후기 인장의 형태, 색, 무늬와 같은 물질적인 측면이나 그것을 공간에 진설하고 감상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편적인 언급에 그쳤을 뿐, 단독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였다. 조선 후기 문헌에서 인장의 재료가 되는 인석의 종류와 산지(產地)가 언급되고, 개인 서재에서 한가로운 시간을 보낼 때 인장을 꺼내 감상하는 취미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장의 재료적인 특질을 파악하고 그것이 공간의 장식물로 기능했던 점에 관한 연구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선행 연구 자료를 토대로 17~19세기 기록과 이미지를 종합하여 조선 후기 인장의 재료, 특히 인석이 지닌 색, 광택, 무늬와 같은 물질적 특성이 인장 애호가들 사이에서 어떻게 향유되었는지 그 양상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조선 후기 인장 문화는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해 명·청대 인장 문화를 영향을 받으며 발전했으므로, 먼저 중국에서 인석이 인장의 재료로 새롭게 인식되고 서재를 꾸미는 장식품으로도 선택된 흐름을 살펴본다. 그리고 조선 후기 문인들이 인석을 어떻게 인식하고 활용했는지 문헌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조선의 인장 애호가들은 서재에서 한가한 시간을 보낼 때 서화, 고동기 등과 함께 인장을 진열해 놓고 감상하는 취미를 즐겼으며, 기록과 회화 자료를 통해 서재라는 개인 공간에서 인장이 향유되는 모습을 가늠할 수 있다.

본고는 조선 후기 문인들이 애호했던 인장의 물질성에 주목하며, 인장을

4) 조선시대 인장에 관해서는 실로 다양한 분야에서 전시와 연구 성과들이 풍부하게 축적된 상황이다. 지면의 한계로 모든 연구를 거론하기는 어려우므로, 인장의 통사를 다루었거나 인장 문화의 수용, 수장, 담론 등을 집중적으로 다룬 사례만을 소개한다. 해당 서적의 참고문헌을 통한다면 더욱 풍부한 인장 관련 논저들을 접할 수 있을 것이다. 『문헌과해석』에 연재된 박철상의 《장서인 이야기》; 국립고궁박물관, 『조선왕실의 인장』, 2006; 성인근, 「조선시대 印章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7; 구자훈, 「朝鮮朝의 藏書印·藏書家 研究 : 고려대학교 소장본을 대상으로」,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1 등.

공간을 구성하는 경물의 하나이자 소유자가 애정하고 감상하는 대상으로 바라본다. 이러한 접근은 조선 후기 문화계의 ‘도장벽’을 더욱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을 것이다.

Ⅱ. 명·청대 문인의 인장 인식과 감상

문자나 부호를 새겨 사용하는 인장은 선진(先秦) 시기부터 발전을 시작하며 신용의 상징이나 개인을 식별하는 표식으로 사용되었다. 한대에는 관인(官印)의 형식이 확립되었고, 당대 무렵 회화 감상과 수장이 본격화되면서 개인적 용도의 감장인(鑑藏印)이 등장했다.⁵⁾ 송대와 원대에는 감장인의 사용이 계속되면서 인장은 서화 감상과 창작의 구성 요소가 되었다.⁶⁾ 시간이 흘러 명대 중반에 이르러 문인문화가 난숙해지는 분위기 속에서 인장은 서화의 부수적인 요소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예술 영역을 구축하였다. 명대 중반 이후 인장이 문방(文房)의 주요 기물로 자리 잡으며 문화적 의미가 증대된 배경에는 당시 문인들이 인장의 제작자로 나섰던 사실이 있다.

본디 인장은 금속이나 동물의 뼈 또는 옥과 같이 단단한 재질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각공(刻工)의 손에서 제작되었다. 돌은 모름지기 장신구나 완구 제작에 사용될 뿐, 인장의 재료로는 여겨지지 않았으나⁷⁾ 원대 말엽 화유석(花乳石)과 같이 무른 성질의 돌로 인장을 제작한 사례가 등장했고,⁸⁾

5) 중국 인장의 역사적 전개는 사맹해 저, 곽노봉 역, 『印學史』, 다운샘, 2011, 60-88쪽과 261-266쪽을 참고.

6) 원대 이전 감상인의 용례와 작품별 사례에 대해서는 丁羲元, 『晉唐五代宋元書畫鑑藏古印』, 故宮出版社, 2021 참고.

7) 周亮工(1612-1672), 『印人傳』 卷一 《書文國博印章前》 “蓋蜜臘未出, 金陵人類以凍石作花枝葉及小蟲螭, 為婦人飾, 即買石者亦充此等用, 不知為印章也 (국문 해석은 사맹해 저, 곽노봉 역, 위의 책, 2011, 108-109쪽을 참고)

8) 이인숙, 「元 吾丘衍의 『學古編·三十五舉』 印章論 연구」, 『서예학연구』 17, 한국서예학회, 2010, 279-280쪽.

명대 중반 문팽(文彭, 1498-1573)과 하진(何震, 1530?-1604)이 돌을 사용해 직접 인장을 만들게 되면서 문인사회에서 전각과 인장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형성되었다. 특히 문인들이 줄곧 들어왔던 붓 대신 칼이 그와 동등한 지위를 갖게 되면서⁹⁾ 인장은 예술가로서 그리고 공예가로서 문인들이 지닌 미적 취향을 발휘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었다. 일례로 명말 출간된 문인 생활의 교양서 중 하나인 『고반여사(考槃餘事)』에는 인장 조각에 필요한 재료와 도구 그리고 방법이 상세히 설명되어 인장 제작에 대한 관심과 방법론이 서적으로 유포되는 상황을 읽어낼 수 있다.¹⁰⁾

인장을 새기는 일에 참여하는 문인들이 증가하면서 원대의 『학고편(學古編)』에서부터 시작된 전각예술에 대한 이론인 인론(印論) 역시 심미론, 창작론, 비평론 등 각 분야를 망라하며 풍부하게 전개되었다.¹¹⁾ 아울러 개별적으로 수집하여 감상하던 인장을 체계적으로 목록화한 인보(印譜)의 출간 또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는데, 16세기 『고씨집고인보(顧氏集古印譜)』(1572)를 필두로 다종다양한 인보가 출판되면서 문인 간에 향유되던 인장의 수집·감상 취미가 출판물을 통해 빠르게 확장될 수 있었다.¹²⁾

9) Jonathan Hay, “Sensuous Surfaces - The Decorative Object in Early Modern China”, London : Reaktion Books, 2010, p.55.

10) 屠隆(1543-1605), 『考槃餘事』 《印章》 “근래에는 옥장을 새기는데 있어 곤오도나 섬수를 사용한다는 말은 들을수가 없고, 다만 진국화강을 달구어서 칼을 만든다고 한다. 너비는 5푼, 두께가 3푼, 칼끝을 평평하게 갈아서 그 평평한 끝의 뾰족한 칼날을 사용하는 것이다. 도장에 먼저 전문을 쓰고 나무로 만든 대에다 놓고 검은 고정시킨 다음 칼을 문자의 획을 따라 새긴다. 한번에 들어가지 않으면 재차 파고 많으면 세번째 칼을 대야 비로소 옥가루가 일어나게 된다. 그러나 너무 힘을 주는 것은 미끄러워서 새기기 어려워 안된다. 칼을 이리저리 옮길 때는 팔을 써야 한다. 한편 솥돌을 옆에 놓아두고 시시로 칼을 갈아서 칼끝을 뾰족하고 잘 들게 하면 잘되지 않을 리가 없다. 달리 특별한 기술이 드는 것은 아니다. …”(국문 번역은 屠隆 著, 權德周 譯, 『考槃餘事: 生活과 趣味』, 乙酉文化社, 1969, 213-216쪽 인용)

11) 박철상, 앞의 논문, 2002, 45쪽.

12) 신주리, 「왕계숙(汪啓淑)의 인보(印譜) 출판을 통해 본 18세기 강남(江南)의 문인문화와 염상(鹽商)」, 『中國語文學誌』 62, 중국어문학회, 2018, 102쪽.

전각과 인장에 관한 이론과 역사가 체계화되는 것과 더불어 전각 취미를 즐기기 위한 물질적인 바탕인 ‘재료’에 대해서도 선택과 평가의 기준이 마련되었다. 요컨대 문인들이 특별히 주목했던 인장의 재료인 돌에 관해서도 품격(品格)을 판단할 수 있는 준거가 생기고 지역별로 유명한 재료도 알려진 것이다. 일찍이 중국 각지에서 산출된 명석(名石)을 기록한 『운림석보(雲林石譜)』에는 진주석(辰州石)과 부광석(浮光石)이 인재로 쓰였다고 기록되었는데¹³⁾ 명대 문인 사이에서는 절강성 청전현에서 산출되는 청전석(靑田石)(도



도1. <印料(청전석)>, 淸, 중국 고궁박물관

1)이 인석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인석은 단단하지 않고 부드러워 조각하기 쉬워야 했고 고유한 색과 무늬도 갖추어야 했는데, 청전석은 옥과 같은 색과 광택을 가졌으며 무른 성질로 조각이 쉬워 필의(筆意)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당대 유명 문인이었던 문맹이 우연히 청전석을 얻은 뒤로 다른 재료는 사용하지 않고 오직 청전석만 사용했다는 일화에 힘입어 명성을 얻게 되었다.¹⁴⁾

방이지(方以智, 1611-1671)의 저술 『물리소식(物理小識)』에는 광택, 투명도에 따라 나뉜 청전석의 종류와 품명(品名)이 기록되어

있는데 동석(凍石), 납동(蠟凍), 등광(燈光), 두청(豆靑), 봉문청(封門靑)이 바로 그것이다.¹⁵⁾ 청전석 원석 덩어리에서 얻을 수 있는 인석의 종류가 이처럼

13) 杜綰, 『雲林石譜』 卷中 《辰州石》 “辰州蠻溪水中出石色黑諸蠻取之磨刃每洗滌水盡黑因名黑石扣之無聲彷彿如 階州者土人琢為方斛器物及印材粗佳亦堪製為硯間有溫潤不可多得”; 卷下 《浮光石》 “光州浮光山石產土中亦潔白質微粗燥望之透明扣之無聲彷彿如 階州者土人琢為斛器物及印材粗佳”

14) 명대 전각사에서 문맹의 역할에 대해서는 사맹해 저, 곽노봉 역, 앞의 책(2011), 제21장 참조.

15) 方以智(1611-1671), 『物理小識』 《靑田凍石》 “靑田石之心為凍石 如蠟者曰蠟凍 光明

다양했다는 사실은 인장 애호에 힘입어 재료의 감식과 품평의 기준이 상세하게 마련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청전석 외에도 복주(福州)의 수산석(壽山石)¹⁶⁾이나 처주(處州)의 등명석(燈明石)도 인장 재료로 명성을 얻었다.¹⁷⁾

한편 인장은 서재에 배치하여 공간을 꾸미는 장식물로도 사용되었다. 문진형(文震亨, 1585-1645)은 『장물지(長物志)』 권7 《기구(器具)》 편에서 서재 공간을 장식하는 다양한 기물을 거론하면서 인장도 함께 다루었다. 그는 여러 가지 금속, 상아, 옥, 수정, 나무, 돌은 모두 인장 재료로 가능하지만, 도자기는 불가하다고 판단했으며 도금한 것, 금이나 은을 세밀하게 상감한 것, 금과 옥으로 만들거나 마노 등으로 만든 인장, 전각이 정밀하면서 예스럽고紐(紐)의 영식이 기이하고 교묘한 것 등은 많이 비축하여 감상하도록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¹⁸⁾

서재는 학문적 탐구가 이루어지는 개인적인 공간이면서 손님을 맞이하거나 사무를 처리하는 공적인 공간이라는 점에서 복합적인 속성을 지녔기에 공간 주인이 지닌 사회경제적 지위와 문인으로서 정체성 및 취향을 보여줄 수 있는 기물로 장식되어야만 했다.¹⁹⁾ 명말에는 책상이나 책상 위에 골동을 진열, 전시하는 취미가 성행하면서 서재는 이미 단순히 공부만을 위한 공간이 아닌, 자신의 취향과 안목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변모했고²⁰⁾ 이런 점에서

者曰燈光 近心者為豆青 次為封門青 圖書取之為其易于下刀 而芝泥油不滯浮石面也 遼凍下刀有沙聲作印最沾印色 閩壽山石金山石光潤可觀亦具五色…”

16) 수산석은 복건성 복주에서 북쪽으로 60리 떨어진 부용봉 아래에서 생산된다. 흰색이 많고 또한 노란색도 있으며, 세칭 전황이라는 것이 가장 유명하고 진귀하다. 사맹해저, 광노봉 역, 앞의 책(2011), 109-110쪽.

17) 故宮博物院, 『故宮博物院藏青田石』, 2020, 6쪽; 郎瑛, 『七修類稿』 卷二十四 “圖書 古人皆以銅鑄 至元末 會稽王冕以花乳石刻之 今天下盡崇處州燈明石 果溫潤可愛也”

18) 문진형 저, 김의정, 정유선 역, 『장물지』, 학고방, 2017, 542-543쪽.

19) Jonathan Hay, “Sensuous Surfaces - The Decorative Object in Early Modern China”, London : Reaktion Books, 2010, pp.285-289.

20) 유재빈, 「건륭제(乾隆帝)의 다보격(多寶格)과 궁정 회화」, 『미술사와 시각문화』 25, 미술사와 시각문화학회, 2020, 65쪽.

『장물지』와 같은 문인의 실내 장식 매뉴얼 속에 기록된 인장은 실용품, 예술품, 감상품 등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명대 중엽 이후 문인들이 형성한 인장 제작, 소장, 감상의 문화는 청대에도 계속되었다. 특히 이 시기에는 강남 일대의 문인 전각가들이 북경의 황실과 연결되고 민간에서도 인장 문화를 향유하는 계층이 확대되면서 명대의 인장 열풍이 활발히 지속될 수 있었다.²¹⁾ 인장 향유에 관련한 이론적, 물질적 토대가 더욱 풍성해진 가운데, 청 황실은 청전석과 같이 명말 이래 집중적인 관심을 받은 인석 외에도 전황석(田黃石), 계혈석(鷄血石) 등 당대 최고의 인재를 수장하였으며 전국 각지에서 생산된 다양한 암석과 광물을 인장 제작에 활용하면서 인석의 발전을 촉진시켰다.²²⁾

서재와 같은 문인 개인 공간에 인장을 진설하고 감상하는 내용은 명말 간행된 문방청완류 서적을 통해 확산되었다. 청대 인장 향유의 장면은 회화 이미지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17세기 중반 강남 문인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 왕시민(王時敏, 1592-1680)의 서재를 그린 그림 〈Portrait of Wang Shimin〉를 보자.(도2) 그림의 화면 중앙의 주인공을 중심으로 주칠 좌대를 갖춘 푸른색 청동기형 화기와 책상이 배치되어 있고, 책상 위로 붓, 벼루, 서책과 함께 옥색 인장이 보인다.(도3) 인장은 향을 피우거나 책을 보는 등 아취 있는 문인 생활을 위해 마땅히 갖추어야 하는 물건들과 함께 등장한다. 문인의 생활 공간에서 서책, 고동기, 도자기 등의 선택과 진설은 명말 이후 상당히 규범화되었고, 왕시민의 인장 역시 그러한 규칙 속에서 일정한 지위를 차지하며 선택되었다고 볼 수 있다.

민간의 문인과 더불어 당대 최고의 인장 문화를 향유한 청 황실에서도 실내 공간 장식물로 인장이 사용되었다. 옹정제(雍正帝, 1678-1735)가 문인

21) 故宮博物院, 앞의 도록, 2020, 6쪽.

22) 성인근, 앞의 책, 2013, 224쪽; 강희제 이후 황제의 인장 제작에 석재의 사용 비중이 점차 증대되었고 현재 추정으로 옹정제의 인장의 90% 이상의 암석류를 활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故宮博物院, 위의 도록, 2020, 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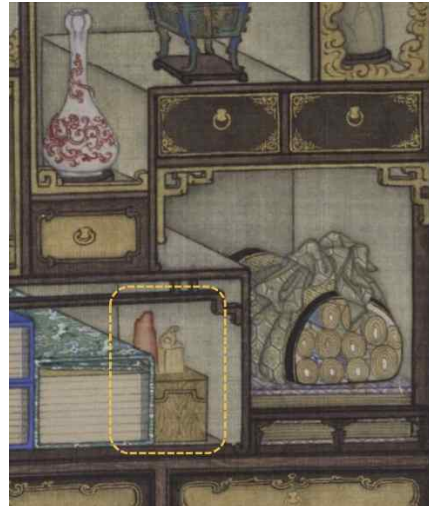
도2. <Portrait of Wang Shimin> , late 17th century, 35.2×119.7cm, Minneapolis Institute Of 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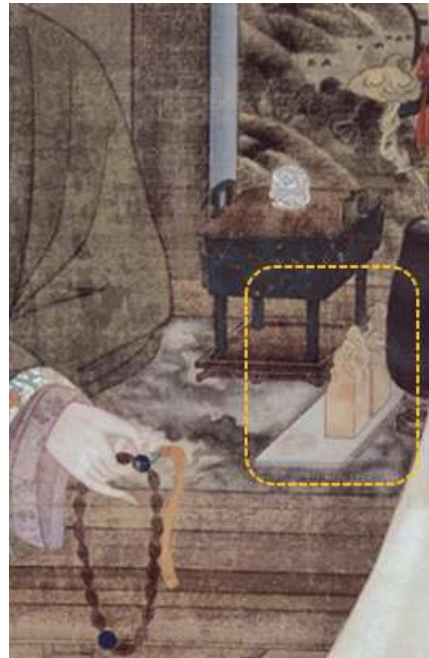
도3. 도2의 확대.

의 복장을 하고 책을 읽는 모습을 그린 <윤진행락도책(胤禛行樂圖冊)·위로관서(圍爐觀書)>에는 선반이 있는 가구형의 다보격 안에 도자기, 고동기, 서책과 함께 인장이 있고(도4), 궁정을 배경으로 한 미인도인 <옹친왕제서당심거도병(雍親王題書堂深居圖屏)·염주관묘(捻珠觀猫)>에도 여인의 앞에 놓인 탁자 위에 방형 향로, 여의와 더불어 인장 두 과가 가지런히 놓여 있다.(도

5)



도4. 〈胤禛行樂圖冊·圍爐觀書〉, 淸, 37.5×30.5cm, 중국
고궁박물관



도5. 〈雍亲王題書堂深居圖屏·捻珠觀猫〉, 淸, 184×119.7cm,
중국 고궁박물관

황실을 배경으로 그려진 그림은 허구적인 설정이거나 가상의 인물을 주인공으로 하지만, 행락도나 미인도에 실제 황실의 소장품을 사실적으로 그려

삽입한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그림 속 인장 또한 청 황실의 소장품이며 황실의 고유한 진설 방식에 따라 배치되었을 가능성을 내포한다.²³⁾

고대부터 신분의 상징으로 사용된 인장이 명·청대에 접어들어 공간의 풍경을 구성하는 경물의 하나로 활용되면서 인장의 장식, 색, 형태와 같은 조형적 요소도 중요해졌을 것이다. 명·청대 인장 문화의 영향을 받은 조선 후기에도 문인의 개인적인 공간에서 인장을 제작, 감상, 수장하는 문화가 형성되었는데, 자연스럽고 소박한 생활을 지향하면서 품격있는 있는 물건을 향유하기 위해 색, 광택 등 재질에 관심을 기울이는 현상이 확인된다. 이러한 지향점 속에서 조선 후기 문인들이 인장 수집과 감상의 문화를 어떻게 가꾸어나갔는지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다.

III. 조선 후기 인장 문화의 유입과 인쇄(印材)에 대한 관심

조선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는 혼란기 속에서 문화 교류를 통해 명대 문인들의 문방청완과 고동서화 문화를 접하게 되었다. 사대부 문인의 필수 문방구 가운데 하나인 인장 또한 명대 문인들이 형성한 전각 열풍의 영향을 받아 조선 후기 문인들 사이에서 더욱 애호되기 시작했다. 초반에는 명의 관료들과 인적 교류를 통해서 혹은 명에서 출판된 인보를 통해서 조선 문인들은 전각과 인장에 대한 지식과 심미안을 쌓았고²⁴⁾ 17세기 이후 조선에는 허목(許穆, 1595~1682)과 김상헌(金尙憲, 1570~1652)과 같이 인장에 깊은 식견을 바탕으로 감상과 향유에 이론을 창출한 문인들이 등장하며 조선의 인장 문화가 확립될 수 있었다.²⁵⁾

23) 유재빈, 앞의 논문, 2020, 76-78쪽; 옹정제 시기 미인도에 그려진 기물들이 황실 소장품과 관련된 점은 彭盈眞, 「無名畫中の有名物-略談〈深柳讀書當美人圖〉の珍玩」, 『故宮文物月刊』 278, 2006를 참조.

24) 박철상, 앞의 논문, 2002, 52쪽.

25) 임진왜란 이후부터 18세기까지 인장 문화의 수용의 문화사적 흐름에 대해서는 박철

아울러 18~19세기에는 명말 간행된 문인 생활 지침서들이 조선에 본격적으로 유입되어 조선 문인들의 한정(閑情) 담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²⁶⁾ 이에 명말 문방청완 문화에 대한 조선 내 공감층이 두터워짐과 동시에 취미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되면서 사대부의 필수 문방구 중 하나인 인장에 대해서도 ‘도장벽’이라 불린 유행이 형성되었다.

문방도구를 가려서 쓰는 고급스러운 취미는 사대부에게는 오랜 관례였으나²⁷⁾ ‘오로지 문방도구에 사치를 부리는 것만은 호사를 부리면 부릴수록 고아하다’는 유만주(兪晩柱, 1755-1788)의 말처럼 문방구를 탐닉하고 과감하게 소비하는 취미는 조선 후기에 만연하게 된다.²⁸⁾ 모름지기 ‘도장벽’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인장의 기본이 되는 양질의 인석을 구하고 그것이 얼마나 좋은 색과 무늬를 가졌는지 감평의 기준도 확립될 필요가 생겼다.

17세기 이후 중국과 교류를 통해 명대 유명 전각가의 인보가 유입되고 인적 교류를 통해 인장 문화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좋은 인재(印材)에 대한 중요성이나 감식안도 자연히 인식하게 되었을 공산이 크다. 서유구(徐有榘, 1764~1845)는 『이운지(怡雲志)』 권4의 《도장(圖章)》에서 도장의 품등과 인뉴(印紐)의 형식을 다루면서 『동천청록(洞天淸錄)』, 『준생팔전(遵生八牋)』, 『집고인보(集古印譜)』 등 중국 내 간행된 인장 관련 저술을 다양하게 인용한 것처럼 서적은 인장 관련 지식과 담론을 수용할 수 있는 일차적인 매개가 되었다.²⁹⁾

상, 「조선후기 문인(文人)들의 인장(印章)에 대한 인식(認識)의 일면(一面)」, 『한문교육논집』 35, 한국한문교육학회, 2010, 참고.

26) 안대회, 「동아시아 청언소품(淸言小品)의 전파와 향유」, 『민족문화연구』 75,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7, 231-260쪽.

27) 안대회, 「조선 후기 취미생활과 문화현상」, 『한국문화』 60, 서울대학교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2, 79쪽.

28) 안대회, 앞의 논문, 2012, 80쪽; 兪晩柱, 『欽英』, 1780년 6월 15일 기사 “棟宇之奢, 鬼瞰之也; 食醺之奢, 身之賊也; 器服之奢, 雅遠之品折也. 獨文房之奢, 奢而愈雅, 鬼所寬恕, 身以寧淸.”

29) 서유구 저, 임원경제연구소 역, 『怡雲志』 2, 풍석문화재단, 2019, 292-333쪽.

또한 연행을 통해 명·청대 문인과 교류하면서 전각과 인장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시장에서 다양한 인석을 경험하는 상황은 재료에 대한 안목과 지식을 축적할 수 있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연행에 참여한 사신들은 각종 문방구와 골동품을 구매하고 감상하기 위해 빠짐없이 들렀던 유리창(琉璃廠)에서 인장을 판매하는 점포에 방문할 수 있었고³⁰⁾ 수산석(壽山石), 전황석(田黃石)과 같은 유명 인석을 직접 구매하거나 선물로 얻었다.³¹⁾ 연행에서 다양한 종류의 인재를 경험한 것은 중국산 인재를 향한 관심과 수요를 일으키기 마련이었다. 18세기 무렵 종로의 시장에는 중국산 고급 물품들이 판매되고 지식인들은 중국의 서화 골동을 비롯해 다양한 수입산 문방구를 사용하는 풍조가 만연한 상황에서³²⁾ ‘북경의 시장에서 많은 돈을 주고 기이한 인재를 사들였다’³³⁾는 기록처럼 연행 무역은 기이하고 독특한 중국산 인재를 들여오는 창구가 되었다.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창덕궁 구장품이나 서울역사박물관

30) 청대 문인 이문조는 「유리창서사기(琉璃廠書肆記)」에서 동서로 뻗은 유리창 거리는 서점, 골동가게, 인장포 등이 즐비했다고 설명했다. 정민, 「연행 기록을 통해본 18~19세기 북경 유리창 서점가」, 『북경 유리창』, 민속원, 2013, 92-93쪽. 따라서 유리창을 방문한 조선 사신들은 다양한 인장을 감상하고 구매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다.

31) 연행 참여자들은 청대 문인들과 교유하며 우정과 만남의 증거물로 인장을 얻을 수 있었다. 金景善(1788-1853), 『燕轅直指』 卷4 「留館錄」 계사년(1833, 순조 33) 1월[1일-13일] “7일 상사(上使)가 하인을 천승점(天陞店)에 보냈다. 돌아올 때 두 하인이 따라왔다. 여러 대인(大人)과 우리 두 사람에게 각각 편지가 있고 각각 선물이 있었다. 역암이 부채 두 자루와 붓 두 자루, 복건수산인석(福建壽山印石) 세 개를 보냈다.”; 盧以漸(1720-1822), 『隨槎錄』 卷1 「日月紀略」 10월 22일(경자) “상사께서 편지를 써서 이월정과 작별하셨다. 그가 없어서, 편지를 남겨 놓고 돌아오신 것이다. 이월정이 답을 하여 전황인장(田黃印章) 1개와 또 부채에 시 한 수를 써서 증별(贈別)하였다.”

32) 이종묵, 『글로 세상을 호령하다』, 김영사, 2012, 52-55쪽.

33) 沈錫, 『松泉筆譚』, 694則 “我東之人, 善慕效中國, 其於圖章, 嗜好尤篤. 既盡珣璣之美產, 猶以為未足也. 捐重購於京肆, 必求其異品 …”(김원경, 「문헌자료를 위주로 한 朝鮮後期 印章文化에 대한 일고찰 : 17·18세기 서울·近畿 私印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한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21, 59쪽에서 재인용)



도6. 〈석인재료〉,
2.8×2.8×8.5(h)cm,
국립고궁박물관

관 소장의 운현궁 유물 가운데 인면에 글자가 새겨지지 않은 유물처럼 인석을 다루는 전문 공방에서 전체적인 형태와 인뉴 장식만 가공한 뒤 시장에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가 있어 외국의 시장에서 수입되어 온 인장 유통과 소비의 일면을 짐작해 볼 수 있다.(도6)

한편 인장 애호가들은 중국산 인재 뿐만 아니라 조선에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재료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조선 후기에는 금은, 동, 수정, 호박,

마노를 비롯하여 벽조목(霹棗木) 같은 목재가 인장 재료로 언급되었고³⁴⁾ 인장의 주된 재료인 돌의 경우 유명 산지가 알려질 정도로 인석 애호가들의 관심을 받았다. 석재에 대한 논의는 다른 소재보다 더 구체적이고 풍부했는데, 석재가 가장 보편적인 인장 재료인 것과 더불어 무른 재질과 고유한 무늬, 아름다운 색을 지닌 석재가 조선에서 산출된다면 충분히 중국산 인석을 대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 전기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토산조에는 백옥석(白玉石), 화반석(花斑石) 등 인장 제작에 적합한 재료가 기록된 바 있었고, 조선 후기 괴석에 대한 애호와 박물학적 학문 경향에 힘입어 암석과 광물을 연구한 저작물이 등장한 사실은 국내에서 산출되는 돌의 종류와 특성에 관한 정보가 풍부하게 축적되면서 조선산 인석이 조명될 수 있는

34) 벽조목은 벼락 맞은 대추나무로 신령이 깃들었다고 믿어졌고 목질이 매우 단단한 것이 특징이다. 『오주연문장전산고』 「뇌전벽력변증설(雷電霹靂辨證說)」에 따르면 “벽조목은 재해와 음사를 피하는데 가장 최고로 여겨지며 … 각하여 도장을 만들면 사방 4촌으로 할 것이며 …”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김미라, “벽조목(霹棗木)”, 한국민속대백과사전, <https://folkency.nfm.go.kr/>, 검색일 2024.04.30.

토대를 제공해 주었을 것이다. 조선 후기 암석 및 광물 관련 저술로는 서유구(徐有渠, 1764~1845)가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에 각종 괴석의 종류와 산지를 정리했고³⁵⁾, 황윤석(黃胤錫, 1729-1791)은 그의 박물학적 관심에 기반하여 전국 각지에서 얻을 수 있는 암석의 내용을 「잡지(雜志)」에 정리했다.³⁶⁾ 특히 황윤석의 저술은 조선 전기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토산조 내용을 근간으로 하면서도, 개인적으로 수집한 정보를 가공해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광물은 물론 산지와 재질에 대해 상당히 자세한 정보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³⁷⁾

이처럼 조선 내에서 얻을 수 있는 돌의 종류와 특성, 산지 등 정보들이 풍부하게 축적되면서 자연스럽게 인석 관련 내용도 선별되었을 것이다. 대표적으로 이용휴(李用休, 1708~1782)가 지은 「인재설(印材說)」은 당시 조선에서 유명했던 인석의 주요 산출지명이 기록되어 주목할 만하다. 그는 “(인석은) 경주(慶州)·해남(海南)·진도(珍島)·평산(平山) 같은 여러 고을에서 생산된다”며 인석의 산지로 유명했던 주요 지역을 꼽았다.³⁸⁾ 이용휴는 강세황과

35) 徐有渠, 『怡雲志』 卷第三 「山齋清供」; 서유구는 우리나라 돌의 품등을 정리하면서 그 종류로 경천석(敬天石), 신계석(新溪石), 안산석(安山石), 수락석(水落石), 풍천석(豐川石), 단양석(丹陽石), 덕적석(德積石), 금강석(金剛石), 낭간석(琅玕石), 종유석(鍾乳石), 옥순석(玉筍石), 물상석(物象石)을 거론했다. 강희안 저, 이종묵 역해, 『양화소록 : 선비, 꽃과 나무를 벗하다』, 아카넷, 2012, 394-401쪽.

36) 「雜志」는 『頤齋亂藁』의 卷9에 속하며 수학에 관한 기록인 「算學問答」을 비롯하여 광물과 식물, 온천에 대한 기록인 「孤弦約說」, 「金玉土石草木攷」, 「溫泉椒泉及異蹟攷」 등과 함께 수록되어 있다. 한문중, 「황윤석의 저술과 『이재난고』의 범위」, 『전북사학』 66, 전북사학회, 2022, 74쪽.

37) 예를 들어서 의주의 담청옥의 경우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구체적인 산출 위치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황윤석은 ‘옥강’을 거론했었다. 의주 옥강에서 담청옥이 산출된다는 내용은 철종대 간행된 것으로 보이는 백과사전식 서적 『東典考』에서도 확인되는 바로 황윤석은 서적을 통하거나 인편, 개인적인 경험 등을 계기로 얻게 된 지식을 추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38) 李用休, 『惠寰雜著』 卷12 「印材說」 “我國慶州 海南 珍島 平山諸郡 亦産焉 然良者 絶罕耳...”

교유하면서 인장에 대한 안목을 키웠고 명·청대 자료들을 다양하게 섭렵하며 인장에 대한 풍부한 저술을 남긴 인물이다.³⁹⁾ 인장에 대한 애호와 감식안을 갖춘 이용휴가 조선 내 인석의 특산지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국 각지에서 산출된 광물 가운데 일부가 인석에 적합한 특산물로 인식되고 유통되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용휴가 언급한 지역의 지방지를 살펴보면 인장의 재료로 사용되었을 법한 광물의 종류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1897년 편찬된 『황해도전지(黃海道全誌)』에 따르면 평산의 특산물 가운데 남석(藍石)과 청려석(靑礪石)이 이름을 올렸고⁴⁰⁾, 1845년에 편찬된 경주부지인 『동경잡기(東京雜記)』에는 수정(水晶)과 수마노(水瑪瑙)가 기록되어 있으며⁴¹⁾ 1899년의 『해남읍지(海南邑誌)』에는 화반석(花斑石)이 물산 항목에 포함되었다.⁴²⁾ 지방지에 거론된 광물 가운데 수정은 일찍이 외교 예물로 사용될 정도로 품질이 우수했고⁴³⁾ 오늘날에도 경주와 언양 일대는 품질 좋은 수정이 산출되는 것으로 유명하다.⁴⁴⁾ 마노 중 적마노[赤瑪瑙]는 일본이 요청한 교역 품목의 하나였고⁴⁵⁾ 해남의 화반석 또한 19세기 기록에 명품 석재로 거론된 바 있었다.⁴⁶⁾

39) 박철상, 「표암 강세황가의 장서인」, 『문헌과해석』 26, 태학사, 2004.

40) 『黃海道全誌』(K2-4341) “物産 絲 藍石 靑礪石 【出寶山驛南】 … ”

41) 『東京雜記』(K2-4232) “土山 白礬出舍羅峴 … 水瑪瑙 水晶”

42) 『海南邑誌』(奎10780) “物産 太半無産 楮 苧 竹 … 華斑石 自然銅”

43) 『舊五代史』 卷138 “顯德六年高麗遣使貢紫白水晶二千顆”

44) 울주 언양, 경주 일대에 수정 광산이 있으며 지표와 계곡에서도 백수정, 자수정 등의 광물 채집이 가능하다. 박홍국, 「옥류(玉類) 원석 탐사」, 『야외고고학』 33, (사)한국문화유산협회, 2018, 99쪽.

45) 『倭人求請臚錄』(奎12955) 卷5 “一代官倭言內江戶執政等所求是如各色尾扇一百柄有斑赤瑪瑙石一斤必須七月內許買入給亦云云爲去乙…” 일대관왜의 말이 ‘에도의 집장 등이 구하는 것인데 각색 미선 100자루, 점이 있는 적마노석 1근을 반드시 7월 이내로 무역을 허락하여 들여달라’고 운운하거늘 … (번역문은 부산시(시사편찬실), 『국역 왜인구청등록(IV)』, 200-201쪽 참고)

46) 19세기 말 허훈(許薰)은 『舫山集』 「遊水淨寺記」에서 의성의 비봉산 기슭 수정사 인근의 마무곡(馬武谷)에서 나는 괴석을 소개하면서 중성과 단천에서 나는 청강석(靑剛

일찍이 인장 연구사에서 ‘인재가 빈약하고 양질이 아니다’라는 평가가 내려지기도 했지만⁴⁷⁾ 조선 후기 인석의 명산지가 등장한 사실은 전국의 광물 산지에 대한 정보가 축적되고, 인석 감평의 기준이 확립되었음을 보여 준다. 이는 각양각색의 암석을 인재로 활용할 수 있는 애호가층이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조선 후기 문인 사이에 취미를 가꾸는 문화가 성숙해지면서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은 각 지역 명품의 목록이 등장하게 되었는데,⁴⁸⁾ 인석의 산지가 정리된 현상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처럼 인장 향유의 토대가 되는 사상적, 예술적 배경 외에도 재료의 공급과 산지의 발견 등이 잇따르면서 조선 후기 문인사회에서 인장은 더욱 보편적인 취미가 될 수 있었다.⁴⁹⁾

IV. 기록과 이미지로 본 조선 후기 인장 향유 양상

17세기 이후 인장 향유의 이론적 토대가 형성되며 인장의 글씨와 조형을 감상하는 것은 유행하는 취미가 되었다. 18세기 이후 문인들이 주로 생활하는 공간인 서재와 그 내부의 다양한 기물을 예술 작품의 대상으로 바라보기

石)과 강진과 해남에서 나는 화반석을 명품으로 꼽았다. 이종묵, 「조선시대 怪石 취향 연구-沈香石과 太湖石을 중심으로-」, 『韓國漢文學研究』 70, 한국한문학회, 2018, 132쪽.

47) 김양동, 「韓國 印章의 歷史」, 『韓國의 印章』, 국립민속박물관, 1992, 194면.

48) 안대회, 앞의 논문, 2012, 73쪽.

49) 조선 후기 인석 산지가 알려진 것과 더불어, 국내에서 산출된 인재를 어떻게 가공하였을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본고에서는 이 문제를 면밀히 다루지 못했지만, 선행 연구 가운데 왕실의 옥공예장인 연구를 참고해 볼 수 있다. 장경희의 연구에 따르면 조선 후기 옥장(玉匠)은 대부분 옥의 산지에서 태어나 성장했으며, 옥을 가공하고 다루는 각종 기술을 익혀 전문 기술을 갖춘 장인으로 활동했다. 장경희, 「朝鮮後期王室의 玉工藝匠人 研究: 17·18世紀 玉匠과 刻手를 중심으로」, 『미술사연구』 15, 미술사연구회, 2001; 따라서 인석 역시 지역의 전문 장인을 통해서 일차적으로 발굴, 가공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국내산 인석의 가공과 인장 제작에 대해서는 추후의 논고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시작하면서 인장 또한 문학과 회화의 주제로 등장한다.

‘문방의 가완(佳玩)’으로 평가된 인장에 대한 관심은 단지 인장의 고문(古文)과 글씨체의 역사성에 국한되지 않았고, 인장이라는 물품을 수장하는 것과 감상하는 행위도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이와 함께 비슷한 시기 지식인 사이에서 돌에 관한 관심이 일어나면서, 인장과 그 재료인 인석에 대한 이해와 관련된 전문적인 정보의 기술이 가능해졌다.

조선의 유학자들 사이에서 성현의 경전에 입각한 도(道)의 실천을 중시하면서 ‘완물상지(玩物喪志)’라는 암묵적인 규제는 서화 고동을 감상하고 수장하는 일을 군자답지 못한 부도덕한 행동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17세기 이후 사물을 좋아하는 것을 개인 고유의 습성으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수장의 변론이 자리 잡게 되었다.⁵⁰⁾ 그리고 18세기 이후 수집의 대상은 서화에서 골동을 포함하여 문방구까지 확장되게 된다.⁵¹⁾ 이러한 현상은 명대 말기 서재가 주인의 취향과 안목에 따라 여러 기물을 진설하는 공간으로 변모한 흐름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⁵²⁾

명말 간행된 문인 생활 지침서에는 서재를 어떻게, 무엇으로 구성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 있다. 명말 문인 도융(屠隆, 1543-1605)은 “청동기나 문방구 등 서재에 둘 물건은 속되지 않은 것을 골라야 하며, 배열하는 법 또한 격(格)에 맞아야 한다”고 말한 것처럼⁵³⁾, 서재를 우아하고 아름답

50) 조선시대 수장 관련 담론의 형성과 흐름에 관해서는 황정연, 「조선시대 수장(收藏)과 수장가(收藏家): 미술사적 의미와 전개양상을 중심으로」, 『미술이론과 현장』 33, 한국미술이론학회, 2022, 26-28쪽.

51) 황정연, 위의 논문, 2022, 28쪽; 조선 후기 문방구의 수장에 관해서는 남공철의 글이 참고된다. 南公轍(1760-1840), 『金陵集』 卷11 「贈元孺良在明序」 “군자에게는 종신토록 이를 사모하는 것이 있으니, 거기에 지극한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고옥, 고동, 정, 이, 필산, 연석을 세상이 모두 소장해서 완호로 삼는다”

52) 陳慧霞, 「明末文房用具的古意與奇趣」, 『古色：十六至十八世紀藝術的藝倣古風』, 國立故宮博物院, 2003, 311-314쪽.

53) 屠隆 著, 權德周 譯, 앞의 책, 1969, 188쪽 참고.

게 꾸미기 위해 적절한 기물의 선택과 짜임새 있는 배치가 중시되었고, 그 방법이 각종 저술을 통해 전수되었다.

조선의 문인들도 서적을 통해 명말 문인 생활 미학을 접하면서, 서재 등의 공간을 책, 서화, 악기, 문방 기물로 채우게 되었다. 조선 후기 서재를 비롯한 문인의 실내 공간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가운데 인장도 실내 장식과 감상의 대상으로 등장하게 된다. 인장의 진설 및 감상 문화와 관련해 가장 먼저 살펴볼 인물은 김상헌(金尙憲, 1570-1652)이다. 그는 조선 후기 인장 향유의 기틀을 만든 인물 중 하나로 평가되며, 재질에 따라서 인장의 형태를 다르게 제작할 정도로 감식안과 재료에 대한 상당한 감각을 갖추고 있었다. 그는 『군옥소기(群玉所記)』에서 “언제나 맑고 쾌청한 날이 되면 자리와 궤안(几案)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에 좌우에 진열해 놓고 만지작거리며 가지고 놓았다. 참으로 예원(藝苑)의 청완(淸玩)이요, 문방의 비진(祕珍)이다”라는 감상을 남겼다.⁵⁴⁾

그가 인장을 감상하는 방식은 후대의 문인들에게도 귀감이 되어 인장을 보며 한가한 시간을 보낸다는 비슷한 내용의 글이 다수 확인된다.⁵⁵⁾ 김상헌이 재질 별로 각기 다르게 제작한 인장을 서재의 가구 위에 마치 전시품처럼 늘어 놓고 감상한 것처럼 훗날의 문인들도 서실에 법서, 명화, 향, 묵과 같은 문방구 또는 청동기와 함께 정연하게 배치한 인장을 감상하면서 시간을 보낸 것이다. 이용휴는 그 스스로 ‘한가한 날이면 그것을 꺼내서 옛 법서와 명화, 이향(異香), 가묵(佳墨)과 함께 뒤섞어 진열하고 바라보면 문득 기뻐서

54) 金尙憲(1570-1652), 『淸陰先生集』 卷38 「群玉所記」 “…常遇晴檐暖日 掃席拂几 陳列左右 摩挲手弄 眞藝苑之淸玩 文房之祕珍也.” (국문 해석은 박철상, 앞의 논문, 2010, 219쪽을 참고)

55) 김상헌의 「群玉所記」를 모방한 글로는 守齋 洪鉉輔(1680~1740)의 「守齋圖書記」, 息山 李萬敷(1664~1732)의 「羣玉識」, 澹村 李福休(1729~1800)의 「圖畧說」이 대표적이다. 세 편의 글 모두 김상헌을 언급했으며, 자신이 소장한 인장을 소개하였다. 홍현보를 제외하면 김상헌과 당파나 전각 유파가 다른데, 이로써 「羣玉所記」의 영향이 상당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김원경, 앞의 논문, 2021, 26-27쪽.

마음에 닿는 부분이 있으니…」라고 하면서 인장을 비롯하여 아름다운 물건을 감상하면서 생활에 안식을 취했다.⁵⁶⁾

더불어 인장의 재질과 광택 등 조형적인 면모를 탐닉한 기록도 보인다. 조종현(趙宗鉉, 1731-1800)은 햇살에 비친 인장의 반짝반짝함이 마음에 흥취를 안겨준다고 할 정도로 빛, 색, 광택 등 인장의 고유한 물질적 속성을 찬미했다.⁵⁷⁾ 이현환(李玄煥, 1713-1772) 또한 ‘인장의 재료로는 아름다운 돌을 높이 여기는데, 재료가 지닌 단단함과 윤기, 무늬와 광채에서 군자로서 본받을만한 것(莊·和·方正·文采)을 찾을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⁵⁸⁾ 이처럼 인석의 재질에 관한 다양한 감상평은 인장의 글씨 외에도 인석의 색, 무늬, 광택과 같이 물질적인 면모가 심미적인 것은 물론 도덕적으로 향유되었던 사실을 보여준다.

문방의 필수품이자 한가로운 때에 곁에 두고 완상할 수 있는 인장은 서재 문화가 시각화되는 현상 속에서 초상화와 책가도 속 이미지로도 등장한다.⁵⁹⁾ 초상화에 여러 가지 기물이 등장하게 된 것은 18세기 이후 중국 서화 및 고동기 수집 풍조의 영향을 받으면서 본격화된 현상으로, 개인의 문화적 신분을 암시하는 소재로써 기물이 강조되면서 초상화의 주인공은 학자, 문

56) 李用休(1708-1782), 『惠寰雜著』 卷12 「印材說」 “每暇日則出之, 與諸古法書, 名畫, 異香, 佳墨, 雜陳觀之, 輒忻然會心, 亦自勝於對俗人談塵事也.”

57) 趙宗鉉(1731-1800), 『天隱亂稿』, 「萃玉函小識(乙亥)」. “金石章, 古文人雅流多嗜之. 余於玩好泊如也, … 每窓日初紅, 几塵乍淨, 則焚香靜坐, 手以摩挲, 燦燦然如入王謝家, 芝蘭玉樹, 上下相映.”(국문 해석은 강관식, 「영조대 후반 책가도(冊架圖) 수용의 세 가지 풍경」, 『미술사와 시각문화』 22, 미술사와 시각문화학회, 2018, 50-51쪽 참고)

58) 李玄煥(1713~1772), 「圖章說」, 『蟾窩雜著』. “夫圖章之用, 古也. 始自唐而盛於宋, 其印章之餘規乎! 材尚美石, 刻必古篆. 石美而後, 其取法也多, 篆古而後, 其游意也高. 石貴縝而栗, 君子所法者, 莊也. 石貴溫而澤, 君子所法者, 和也. 石方且正, 方正可法也. 石文且采, 文采可法也. 石之可法者, 如此矣!”

59) 조선 후기 서재문화의 확립과 서재의 시각화에 관해서는 송희경, 「사랑채가 있는 풍경 - 조선 후기 서재문화와 서재의 시각화」, 『東洋古典研究』 38, 동양고전학회를 참고.

인, 감상자의 모습으로 형상화되었다.⁶⁰⁾ 인장은 편안한 차림으로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는 인물의 초상화에서 살펴볼 수 있다. 전 김홍도의 <사인초상>은 망건을 쓴 채 단정한 자세로 앉아 있는 인물 뒤편으로 놓인 항궐(炕几) 위에 벼루, 필통, 연적, 청동기, 서화 등의 청공품이 배치된 작품으로, 인장은 서갑 위에 놓여 있다.(도7)⁶¹⁾



도7. 전 김홍도, <사인초상>, 18세기, 27.5×43.0cm, 평양 조선미술박물관

이 초상화는 경화세족이라 불리는 최상층 양반 가문부터 재력이 있는 중인까지 여러 계층을 풍미하던 호사 취미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인데, 궐 위에 정연하게 놓인 문방구와 골동 기물은 마치 전시되어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자아낸다.⁶²⁾ 이러한 장면은 한가한 때에 서재에서 청동기나 서화와

60) 국립중앙박물관, 『초상화의 비밀』, 2011, 182쪽; 손정희, 「洪敬謨의 「山居十供記」와 19세기 淸供의 문화적 함의」, 『한국문화』61,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3, 233쪽.

61) 인물 주변으로 배치된 기물을 근거로 해당 작품은 조선 후기 성행한 고동서화 수집과 수입물품의 사치성 소비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이해된다. 장진성, 「조선 후기 고동서화(古董書畵) 수집열기의 성격: 김홍도의 <포의풍류도>와<사인초상>에 대한 검토」, 『미술사와 시각문화』 3, 미술사와 시각문화학회, 2004, 179-184쪽.

62) 장진성, 앞의 논문, 2004, 183-184쪽.

함께 인장을 진설하고 감상하던 문인들의 감상법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필자 미상의 <초상화> 속 인물도 정자관(程子冠)을 쓴 편복 차림으로 집안에서 편안하게 거처하는 모습이다. 그의 주변으로 타구(唾口), 다구(茶具), 화병, 문방구 등의 물건이 수북이 놓여 있는 가운데, 차곡차곡 쌓인 서책 위로 인장이 보인다.(도8) 그가 소유한 인장은 흑색, 황색, 백색의 다양한 색들이 아름다운 무늬를 만들고, 사자나 매화 등의 형상으로 인뉴가 섬세하게 조각되었다. 이러한 물품은 대개 한가로운 생활을 상징하면서 당시의 사치 풍조를 반영한 도시 문화의 산물이라는 점에서⁶³⁾ 인장 또한 당시 문인들의 고급 취미를 보여주는 대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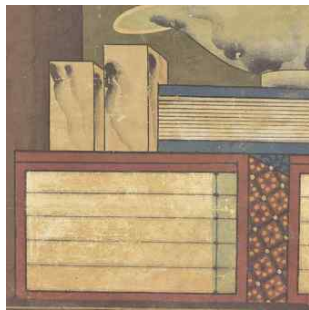


도8. 작자미상, <초상화> , 19세기, 55.8×34.9cm, 일암관

필수 문방구이면서도 서재의 감상물로 기능한 인장은 당시 조선인들이 소유하고자 했던 이상적인 기물들이 그려진 책가도에도 등장한다. 책가도 속 인장은 대개 작은 상자에 여러 과가 담겨 있거나 서책과 함께 진설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영조대를 살았던姜完(姜完, 1739-1775)이라는

63) 송희경, 앞의 논문, 2010, 31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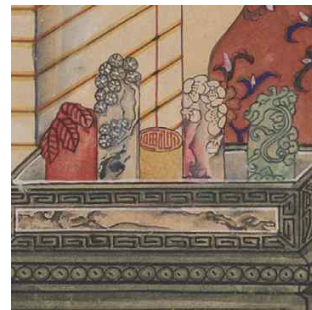
인물은 책가도에 등장하는 가구와 흡사한 다보격 목감을 제작하고 그 안에 도장, 필묵, 인주, 칼, 송곳 등 전각을 하거나 인장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도구들을 보관했다.⁶⁴⁾ 그의 사례는 책가도를 구성하는 경물의 종류나 배치가 비단 환상에 그치지 않으며, 실제 문인 생활과도 관련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조선 후기 문인의 이상적인 공간을 묘사한 책가도의 인장 또한 당시 문인들이 누렸던 현실적이고 모습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도9. 장한중,
〈책가도 8폭
병풍〉일부, 18세기
말-19세기 초,
경기도박물관



도10. 이응록, 〈책가도
8폭 병풍〉일부,
1864-1871년, Asian
Art Museum



도11. 작자미상,
〈문방도 4폭 병풍〉
일부, 국립고궁박물관

책가도에 나타난 인장은 고유한 무늬와 색, 인뉴의 장식이 섬세하게 표현되었다. <도9>처럼 대표적인 명품 인재로 알려진 청전석의 무늬와 색을 잘 묘사했거나 용, 매화, 소나무처럼 문인들이 애호하는 식물이나 벽사와 길상의 의미를 지닌 동물 등 다양한 소재로 장식된 인뉴를 세밀하게 그린

64) 강완은 격자의 크기와 모양에 따라 서책과 서화(書畵)는 물론 다과(茶菓)와 향구(香具)까지 적재적소에 수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나무시렁을 제작한 사실이 「목감기」에 기록되어 있다. 그가 제작한 나무시렁은 형태와 구성이 19세기의 책가도에 묘사되어 있는 청나라의 다보격과 거의 유사한 형태였다. 강관식, 앞의 논문, 2018, 57-69쪽.

사례도 보인다.(도10, 11) 인뉴의 사자를 보고 문방(文房)을 지키고 사우(四友)를 보살핀다며 벽사의 의미를 부여했던 것처럼 조선 후기 인장 애호가들에게 인뉴에 새겨진 조각 또한 감상의 주요 요소였으므로 회화 속 인뉴 장식도 섬세하게 묘사되었다.⁶⁵⁾

이상 살펴본 것처럼 조선 후기 인장은 상고(尙古)를 위한 매개체 혹은 한가로운 시간을 함께 즐기는 서재의 완구로서 문인 공간 속에 자리했다. 도장벽이라 불린 유행이 보여주듯 인면에 새겨진 글자의 서체와 내용뿐만 아니라 돌이라는 재료가 지닌 색, 광택, 무늬와 같은 고유한 특성은 인장을 애호하는 문인에게 향유의 대상이 되었다. 색, 무늬, 광택 등 인재가 지닌 고유한 물질적 가치를 다시금 발견하는 일은 조선 후기 인장 문화를 더욱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든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질 것이다.

V. 맺음말

본 연구는 조선 후기 사대부 문인들 사이에서 인장이 서재를 장식하고 감상된 사실에 주목했다. 조선 후기에는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해 명·청대 인장 문화의 영향을 받아 문인들이 필수 문방구인 인장을 직접 제작하고 감상하는 고급문화가 취미로 자리 잡았다. 이규경이 언급한 것처럼, 도장벽을 지닌 사람이라면 전각과 인문뿐만 아니라 인석과 인색까지 두루 살피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 조선 후기 인장을 애호한 문인들은 인석의 색, 무늬, 광택, 산지에까지 관심을 기울였으며, 서재 공간에 인장을 진설하고 감상하

65) 朴趾源(1737-1805), 『燕巖集』, 「柳氏圖書譜序」 “我得量石, 膚理膩沃, 方武一寸, 瑩然如玉. 獅蹲其鈕, 鞠乳獐吼, 鎮我文房, 綏厥四友.” ‘내가 무늬 있는 돌을 얻었는데 표면이 매끄럽고 크기는 사방 한 치이며 옥처럼 빛이 난다네. 인뉴에는 사자가 걸터앉아 있는데 새끼에게 젖을 물리고서 으르렁대고 있으니, 나의 문방(文房)을 지키고 사우(四友: 종이, 붓, 먹, 벼루)를 보살핀다네’ (한국고전종합DB 번역문 참조 및 수정)

는 등 인장 문화를 풍성하게 가꾸어 나갔다.

서재 공간 속에 인장을 진설하고 감상하는 일은 명말 문인의 생활 미학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문진형을 비롯한 명말 문인들은 생활 공간을 관리하고 장식하는 방법에 관한 저술을 출간하며 인장을 중요한 요소로 포함시켰다. 문인 생활 지침서에서 인장이 언급된다는 점은 당시 문인의 생활과 교양 있는 삶 속에서 인장이 지닌 중요성을 반증한다. 명·청대 문인들은 서책, 붓, 벼루와 함께 인장을 가까이 두었으며, 각종 회화 자료를 통해 그 장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선 또한 이러한 문화를 수용하게 되었고, 전쟁과 왕조교체로 국제정세가 급변하던 17세기 조선이 명말 문인문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조선 후기의 인장 문화는 고문과 서체에만 치우치지 않았다. 인장의 고유한 색, 광택, 무늬 등 물질적 특성을 탐닉하고 서화와 고동기로 장식된 서재 안에 인장을 진설하여 감상하는 등 매우 다채롭게 전개되었다. 본 연구는 조선 후기 문인들이 애호했던 인장의 물질성에 주목하며, 인장을 공간을 구성하는 경물의 하나이자 소유자가 애정하고 감상하는 대상으로 바라보았다. 이러한 접근은 그동안 간과되었던 인장의 물질적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며, 조선 후기 문화계의 ‘도장벽’을 더욱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참고문헌

金景善(1788-1853), 『燕輶直指』
金尙憲(1570-1652), 『淸陰先生集』
南公轍(1760-1840), 『金陵集』
盧以漸(1720-1822), 『隨槎錄』
屠隆(1543-1605), 『考槃餘事』
朴齊家(1750-1805), 《百花譜序》
朴趾源(1737-1805), 『燕巖集』
方以智(1611-1671), 『物理小識』
徐有渠(1764-1845), 『怡雲志』
沈錫(1722-1784), 『松泉筆譚』
李圭景(1788-1856), 『五洲衍文長箋散稿』
李用休(1708-1782), 『惠寔雜著』
李玄煥(1713-1772), 「圖章說」, 『蟾窩雜著』
趙宗鉉(1731-1800), 『天隱亂稿』
周亮工(1612-1672), 『印人傳』

『東京雜記』(K2-4232)
『舊五代史』
『倭人求請謄錄』(奎12955)
『黃海道全誌』(K2-4341)
『海南邑誌』(奎10780)

김양동, 「韓國 印章의 歷史」, 『韓國의 印章』, 국립민속박물관, 1992.
김원경, 「문헌자료를 위주로 한 朝鮮後期 印章文化에 대한 일고찰 : 17·18세기
서울·近畿 私印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한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21.
박철상, 「임진왜란과 장서인의 보급」, 『문헌과해석』 18, 문헌과해석사, 2002.

- _____, 「표암 강세황가의 장서인」, 『문헌과 해석』 26, 2004.
- _____, 「조선후기 문인(文人)들의 인장(印章)에 대한 인식(認識)의 일면(一面)」, 『한문교육논집』 35, 한국한문교육학회, 2010.
- 박홍국, 「옥류(玉類) 원석 탐사」, 『야외고고학』 33, (사)한국문화유산협회, 2018.
- 성인근, 「조선후기 印譜의 유입과 제작 양상」, 『역사와실학』 38, 역사와실학회, 2009.
- 손정희, 「洪敬謨의 「山居十供記」와 19세기 淸供의 문화적 함의」, 『한국문화』 61,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3.
- 송희경, 「사랑채가 있는 풍경 - 조선 후기 서재문화와 서재의 시각화」, 『동양고전연구』 38, 동양고전학회, 2010.
- 신주리, 「왕계숙(汪啓淑)의 인보(印譜) 출판을 통해 본 18세기 강남(江南)의 문인문화와 염상(鹽商)」, 『中國語文學誌』 62, 중국어문학회, 2018.
- 안대회, 「조선 후기 취미생활과 문화현상」, 『한국문화』 60, 서울대학교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2.
- _____, 「동아시아 청언소품(淸言小品)의 전파와 향유」, 『민족문화연구』 75,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7.
- 유재빈, 「건륭제(乾隆帝)의 다보격(多寶格)과 궁정 회화」, 『미술사와 시각문화』 25, 미술사와 시각문화학회, 2020.
- 이인숙, 「元 吾丘衍의 『學古編.三十五舉』 印章論 연구」, 『서예학연구』 17, 한국서예학회, 2010.
- 이종묵, 「조선시대 怪石 취향 연구-沈香石과 太湖石을 중심으로-」, 『韓國漢文學研究』 70, 한국한문학회, 2018.
- 장경희, 「朝鮮後期 王室의 玉工藝匠人 研究 : 17·18世紀 玉匠과 刻手를 중심으로」, 『미술사연구』 15, 미술사연구회, 2001.
- 장진성, 「조선 후기 고동서화(古董書畵) 수집열기의 성격: 김홍도의 <포의풍류도>와 <사인초상>에 대한 검토」, 『미술사와 시각문화』 3, 미술사와 시각문화학회, 2004.
- 陳慧霞, 「明末文房用具的古意與奇趣」, 『古色 : 十六至十八世紀藝術的藝倣古風』, 國立故宮博物院, 2003.
- 彭盈眞, 「無名畫中的有名物-略談〈深柳讀書當美人圖〉的珍玩」, 『故宮文物

月刊』278, 國立故宮博物院, 2006.

황정연, 「조선시대 수장(收藏)과 수장가(收藏家): 미술사적 의미와 전개양상을 중심으로」, 『미술이론과 현장』 33, 한국미술이론학회, 2022.

강명관, 『조선시대 문학 예술의 생성 공간』, 소명출판, 2001.

강희안 저, 이종묵 역해, 『양화소록 : 선비, 꽃과 나무를 벗하다』, 아카넷, 2012.

故宮博物院, 『故宮博物院藏青田石』, 2020.

국립중앙박물관, 『초상화의 비밀』, 2011.

문진형 저, 김의정, 정유선 역, 『장물지』, 학고방, 2017.

박제가 저, 안대회 옮김, 『궁핍한 날의 벗』, 태학사, 2000.

사맹해 저, 곽노봉 역, 『印學史』, 다운샘, 2011.

서유구 저, 임원경제연구소 역, 『怡雲志』 2, 풍석문화재단, 2019.

이종묵, 『글로 세상을 호령하다』, 김영사, 2012.

정민 외, 『북경 유리창』, 민속원, 2013.

丁羲元, 『晋唐五代宋元书画鉴藏古印』, 故宫出版社, 2022.

Hay, Jonathan. “Sensuous Surfaces - The Decorative Object in Early Modern China”,
London : Reaktion Books, 2010.

한국민속대백과사전 <https://folkency.nfm.go.kr/>

한국고전종합DB <https://db.itkc.or.kr/>

Abstract

Appreciation and Material Enjoyment of Seals
in the Late Joseon Dynasty

LEE DARAN (LEE, DA RAN)

This study examines how the material properties of seals, particularly the color, luster, and patterns of seal stones, were appreciated among seal enthusiasts in the late Joseon period. While seals had been used since ancient times for verification and trust, during the mid-Ming dynasty, stones as materials for seals gained new attention, and literati began to make their own seals, establishing them as essential items in their study rooms. Influenced by Ming and Qing seal cultures through personal and material exchanges, late Joseon literati viewed seals not merely as tools but as objects of artistic appreciation.

They were particularly interested in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seal stones, such as color, luster, and decoration. Literati enjoyed spending leisure time in their study rooms, appreciating seals as both objects of enjoyment and elements of spatial decoration. Thus, the seal culture of the late Joseon period was not limited to engraving characters or collecting and publishing seal impressions but also included appreciation and spatial decoration. This study focuses on the materiality of seals, which late Joseon literati cherished, viewing seals as objects that composed the space and as items that owners loved and appreciated. This approach holds significance

as it provides a mor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seal craze' in the late Joseon cultural scene.

Key Words : Late Joseon Dynasty, Seal, scholarly accoutrements, Literati, Study room, Appreciation